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3, 273-303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3.002

정규논문

# 첫째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서울·수도권 지역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안 정 민　　서 예 지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서울·수도권 무자녀 기혼자 13명(남 6, 여7, 부부 4쌍 포함)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출산 결정 과정을 Glaser의 근거이론으로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를 '심리적 성장과 안녕의 동반자'로 정의하는 '유데모니아적 행복관'은 잠정적 출산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잠정적 출산 결정은 '출산 결정 요인'과 '출산 유예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확정되거나 유예되었다. 출산 결정의 최종 확정에서는 부부 갈등 해결 경험을 통해 축적된 관계적 역량과 신뢰에 기반한 '부부 공동 효능감'이 핵심 기제로 작동하였다. 본 연구는 출산 기피 요인의 제거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출산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과 의미 구성의 과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출산 결정이 관계적 역량과 주관적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심리적 과정이며, 개인·관계·조직·제도·사회문화 차원의 요인들이 개인의 내면에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출산 결정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을 귀납적으로 이론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다양한 청년 집단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 스스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출산 결정 과정, 유데모니아적 행복, 부부 공동 효능감,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 출산 유예, 근거이론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이 논문은 안정민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함.
†교신저자: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069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47
ⓒ 2026,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였으며(통계청, 2024), 최근 초혼 신혼부부의 48.8%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연합뉴스, 2025), 무자녀 기혼 가구가 보편적 삶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국방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직결된다(한국은행, 2023).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금 지원 확대와 보육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OECD, 2024). 이처럼 정책적 환경 조성이 실제 출산으로 직결되지 않는 현상은 개인의 출산 결정이 단순히 외부 환경 자원에 따른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임을 시사한다(Hashemzadeh et al., 2021; Kim & Yi, 2024).

이에 그간의 연구들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상당 부분 규명해 왔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김지성, 김유민, 2023; 이보라, 2020), 낮은 부모 효능감(서정원, 김혜란, 2021), 여성의 시간 빈곤(황옥경, 송미령, 2025), 낮은 삶의 만족도(박정민 외, 2022; Mencarini et al., 2018) 등의 심리적 요인이 출산 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며, 낮은 결혼 만족도, 남편의 육아 참여에 대한 낮은 기대(Kim & Yi, 2024)와 같은 관계적 요인, 일・가정 양립의 불가능에 대한 인식(서정원, 김혜란, 2021),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조덕상, 한정민, 2024) 등 조직 내 경험과 인식 또한 출산 의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육아정책연구소, 2025; 이보라, 2020), 경쟁사회에 대한 인식(김근태, 2024),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평등에 대한 지각(박정민 외, 2022; 배광일, 2020)과 같은 제도와 사회문화 차원의 변인들 또한 출산 의도를 낮추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대한 다각적이고 풍부한 설명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경력 단절, 치열한 경쟁 압박 등 동일한 사회구조적 현실에서도 주체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출산 결정이 단순히 외부 환경에 의한 기계적 결과가 아니며, 개인이 그러한 객관적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화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차이를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예컨대, 높은 자율적 출산 동기와 부모 효능감(Nachoum et al., 2021, 2023), 전통적 가치나 돌봄 가치에 대한 선호(Tartakovsky & Mizrahi, 2025),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전승봉, 2020; Mencarini et al., 2018), 높은 부부 만족도(Kim & Yi, 2024) 등은 출산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 변인의 통계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출산을 기피하는 집단과 달리 출산을 선택한 집단이 높은 육아비용, 경력 단절, 경쟁 압박 등 한국의 구조적 제약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출산 결정과 포기는 단일 변수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조적 제약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심리적 자원을 사용하는지의 역동적 과정 전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결정한 이들의 내면적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Charmaz, 2014; Glaser,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출산을 결정한 이들에 주목하고, 출산 결정의 심리적 과정을 질적으로 탐구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출산 기피가 지배적인 한국의 사회구조와 맥락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과 의미 구성의 과정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Glaser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 출산 의향이 형성된 서울 · 수도권 지역 무자녀 기혼남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발굴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실질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거비, 사교육비, 경쟁 압박 등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야기하는 구조적 맥락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서울 · 수도권 지역으로 연구의 지리적 범위를 한정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출산을 결정한 이들의 심리적 과정을 포착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을 출산 의향이 형성된 무자녀 기혼 남녀로 한정하여, 출산 결정의 심리적 역동을 생생하게 포착하고자 한다. 기존의 출산 관련 연구는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으나, 출산 결정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배우자와의 관계, 가사와 육아 분담에 대한 상호 기대, 배우자의 지지가 출산 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Barber et al., 2019; Kim & Yi, 2024), 여성의 관점만으로는 부부 간의 심리적 역동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에 남녀 모두를 포함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출산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과 의미 구성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저출산 담론이 방해 요인의 제거를 넘어 자발적 선택에 주목하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확장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출산 결정 및 기피의 다차원적 영향 요인

출산 결정은 개인 내면의 심리와 관계, 조직,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Hashemzadeh et al., 2021; Kim & Yi, 2024). 따라서 출산 결정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맥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출산 결정의 영향 요인을 개인, 관계, 조직, 제도, 사회문화의 5개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각 차원에서 출산 결정 또는 출산 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기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개인 차원

개인 차원은 출산과 관련하여 개인이 내면에서 형성하는 동기, 가치관, 정서적 상태 및 인지적 평가 등을 의미한다. 자녀 가치론(Value of Children; Fawcett & Arnold, 1973)은 자녀가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적 측면에 주목한다. 이론에 따르면, 자녀는 노동과 물질적 자원 측면에서의 경제적 가치, 부모의 사회적 관계와 지위 측면에서의 사회적 가치, 애정과 삶의 의미 등 정서적 가치를 가지며, 현대 사회로 올수록 자녀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약화하고 정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Nauck, 2014). 국내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 가치 선호가 높게 유지되는 동시에 사교육비 부담,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자녀의 부정적 가치 또한 높은 양면적인 특징을 보고하며(김미숙, 2015; 통계개발원, 2023), 이러한 양면성이 정서적 가치가 실제 출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이보라, 2020).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은 출산 의도를 태도, 주관적 규범, 주관적 통제감의 산물로 설명한다. 태도는 출산 결과에 대한 인식 및 가치 평가이며, 주관적 규범은 준거집단의 기대에 따른 사회적 압력, 주

관적 통제감은 부모 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주관적 신념을 의미한다. 출산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지각된 통제가 높을수록 출산 의도가 더 높게 형성되는데(Ajzen & Klobas, 2013), 국내 연구들은 특히 '주관적 통제감'이 한국인의 출산 의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임을 보고하며, 주거, 돌봄 자원, 배우자의 협조 등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김정연, 김영주, 2022; 한경미, 정혜선, 2010; Kim & Yi, 2024).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2000) 관점에서는 자율적 동기에 기반한 출산 결정이 부모 효능감과 지지적 양육 태도를 높이는 반면, 외재적 압력에 의한 통제적 동기는 출산 후 부모 효능감 감소로 이어짐이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Nachoum, et al. 2021, 2023). 이 외에도, 전통적 가치나 돌봄 가치에 대한 선호, 남성의 경우 사회적 안전과 안정 유지에 대한 선호는 출산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Tartakovsky & Mizrahi, 2025), 삶의 만족도가 높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개인일수록 부모가 되기를 선호하였다(전승봉, 2020; Mencarini et al., 2018).

한편,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원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행복의 질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 행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되는데, 쾌락적(hedonic) 행복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과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서 비롯되는 반면, 유데모니아적(eudaimonic) 행복은 자아실현과 삶의 의미 및 목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심리적 안녕감을 의미한다(Ryff & Keyes, 1995). 두 행복의 방향성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쾌락적 관점에서 자녀 양육은 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유데모니아적 관점에서는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더라도 가치있는 목표를 위해 성장할 때 진정한 안녕감이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King & Hicks,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됨은 자아의 확장과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출산 결정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삶의 만족도와 같은 행복의 양적 수준이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해 왔으며(전승봉, 2020; Mencarini et al., 2018), 개인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질적 방향성이 출산 결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종합하면, 출산을 기피하는 이들은 자녀의 부정적 가치 인식이 정서적 가치를 압도하고, 주관적 통제감 및 부모효능감이 낮으며, 비관적 미래 전망을 형성하고, 외적 압력에 의한 출산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자녀의 가치를 어떻게 의미화하는가와 주관적 통제감, 부모 효능감, 출산 동기의 자율성은 출산 결정을 예측하는 주요 심리적 변인이었다. 이에 더해, 개인이 지향하는 행복의 질적 방향성, 즉 쾌락적 행복과 유데모니아적 행복의 가치 지향이 이러한 심리적 변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가적 탐색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관계 차원**

관계 차원은 배우자, 가족, 친구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형성하는 주관적 경험과 심리적 인식을 의미한다. 사회적 확산이론(Social Diffusion Theory; Montgomery & Casterline, 1998)은 개인의 출산 결정이 주변 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됨을 설명한다. 개인은 주변의 출산 및 양육 경험을 관찰하며 사회적 학습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산 이후의 삶을 시뮬레이션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공유하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관이 개인의 내면에서 지각된 사회적 기대로 작동하며,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개인의 출산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일치하게,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은 '출산하지 않는 선택'이 개인의 고립된 선택이 아니라, 무자녀 또는 소자녀 선호 규범이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하면서 자연스러운 사회적 규범으로 고착화된 결과일 가능성을 지적한다(정우진, 2002; Yoo, &

Agadjanian, 2021).

한편,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의 핵심 변인인 '주관적 규범'은 부모, 친구, 직장 동료 등 준거집단의 출산 기대를 통해 형성되며, 배우자의 협조나 가족 돌봄 지원과 같은 관계적 지원은 '주관적 통제감'을 높여 출산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연, 김영주, 2022; 한경미, 정혜선, 2010; Kim & Yi, 2024). 예컨대, 외조부모의 돌봄 지원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은 여성의 출산 의도를 높였으며(배호중 외, 2017; 정미숙, 김준수, 2021), 주변인의 긍정적 자녀 가치관과 출산이 의무라는 사회적 압력 또한 여성의 출산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진, 2023). 이에 더해, 실증 연구들은 부부 관계의 안정성과 만족도가 출산 의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임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결혼 만족도 및 배우자와의 긍정적 관계는 기혼 여성의 출산 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arber et al., 2019), 특히 남편의 육아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고 실제 분담이 적절할수록 아내의 출산 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Kim & Yi, 2024).

이를 종합하면, 출산을 기피하는 이들은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 불만족, 돌봄 지원 네트워크의 부재, 주변에 확산된 무자녀 규범의 내면화를 통해 '낳지 않는 것'을 합리적 선택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부부 관계의 안정성과 역할 분담에 대한 신뢰,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지지와 이에 대한 기대는 출산 의도를 높이는 주요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차원**

조직 차원은 개인이 직장 내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주관적 인식과 경험을 의미한다. 동일한 조직 환경에 놓인 개인이라도 일 · 가정 양립의 가능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조직의 분위기와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출산이 자신의 직업적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주로 출산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집중해 왔다. 여성의 일 · 가정 갈등 경험(김민우, 2020; 서정원, 김혜란, 2021; Yarger & Brauner-Otto, 2024), 직장 내 성차별 인식(Rim et al., 2025), 출산 ·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비공식적 압박과 복귀 후 경력 유지의 불확실성(조덕상, 한정민, 2024; 황옥경, 송미령, 2025)은 출산 의도를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조직 내 경험은 여성의 시간 빈곤과 육아 부담에 대한 지각의 심화, 주관적 통제감의 약화로 이어졌다(김정연, 김영주, 2022).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 · 가정 양립 갈등 역시 출산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Latshaw & Yucel, 2022). 한편,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는 일-생활 균형을 매개하여 여성의 출산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신민영, 2021), 이 효과는 여성의 직급과 동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동일한 조직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해석 방식에 따라 출산 의도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종합하면, 일 · 가정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경력 불이익에 대한 우려, 시간 빈곤과 직업적 정체성 상실에 대한 불안은 출산을 '감당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인식하게 하여 출산 의도 감소로 이어졌다.

**제도 차원**

제도 차원은 개인이 출산 · 양육 관련 정책, 사회 제도 등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가 하는 주관적 인식의 차원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은 현금성 지원, 보육 지원, 일 · 가정 양립제도의 체감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왔다. 현금성 지원 정책의 실질적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김지성, 김유민, 2023; 허만형, 2020), 보육료 · 양육 수당 지급이 실제 교육비 지출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결과는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보여준다(김인경, 2017).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

향 역시 엇갈리는 결과를 보이며(민규량, 2020; 안윤숙, 이상호, 2010; 이상협, 이철희, 홍석철, 2016),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제 활동과 육아 병행이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김인경,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의 객관적 유무보다 정책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신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25; 이보라, 20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종합하면, 정책적 지원에 대한 낮은 효능감과 불신은 출산 의도를 낮추는 반면, 정책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기대는 출산 의도를 높이는 심리적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문화 차원**

사회문화 차원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심리적으로 의미화하는지를 의미한다. 우선, 제2차 인구변천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Lesthaeghe, 2010)은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으로의 가치 전환이 초저출산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는 이 이론과 유사성을 보이나, 경쟁 체제, 성 역할 불평등, 장시간 노동 등 한국 특유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이병호, 2020; 정성호, 2009; Lesthaeghe, 2010).

최근에는 대규모 정책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삶의 질에 관한 가치관 변화와 치열한 경쟁 구조 등 출산 결정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보다 증가하고 있다(Burn-Murdoch, 2024). 최근 국내 질적 연구들은 심화된 경쟁 구조가 청년 세대에게 구조적 불평등에 따른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녀 양육을 '가난과 불안의 대물림' 혹은 '위험한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며(김근태, 2024), 높은 교육열과 학벌주의는 양육 부담에 대한 심리적 과부하를 초래하여 출산 유예 또는 포기로 이어짐을 보여준다(김경근, 최윤진, 2017). 또한, 사회를 신뢰할 수 없고, 불평등하다고 지각할수록 출산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민 외, 2022; 배광일, 2020). 종합하면,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쟁 구조에 대한 불안, 높은 교육열과 학벌주의, 장시간 노동 등 한국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 역시 출산 의도의 감소와 관련을 보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를 종합하면, 출산을 기피하는 이들은 개인, 관계, 조직, 제도, 사회문화의 각 차원에서 낮은 부모 효능감과 주관적 통제감, 배우자와의 불만족스러운 역할 분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 사회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출산을 선택한 이들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는 '왜 출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출산을 결정한 이들의 심리적 동기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방법론에 의존하여 개별 변인의 통계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출산을 결정한 사람들이 실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는지 내면의 역동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각 차원의 요인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으로, 개인, 관계, 조직, 제도,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실제 출산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그 통합적 역동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한국 청년의 실제 삶과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김영미, 2023; 이상림, 2025)으로 이어지며,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출산 결정의 심리적 과정을 조명하고, 저출산 정책이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Glaser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출산을 결정한 서울 · 수도권 지역 무자녀 기혼자들의 의사결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발굴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실질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차원적 요인들이 개인의 내면에서 어떻게 통합되고 재해석되어 최종적으로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역동적인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서울 · 수도권 무자녀 기혼 남녀가 출산을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심리적 요인들은 어떻게 구조화되며, 어떠한 역동으로 상호작용하여 출산 결정에 이르게 되는가?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첫째 자녀 출산 의향이 형성된 가임기(아내 나이 19-49세) 무자녀 기혼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초기 표집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이후,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Glaser(1992; 2014) 근거이론의 원칙에 의거해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병행하여, 초기 분석에서 도출된 가설적 범주를 구체화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 맞벌이 여부, 결혼 기간과 같이 출산 결정의 역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속성을 지닌 참여자를 추가 섭외함으로써 개념의 차원과 속성을

표 1. 심층 인터뷰 참여자 특성

| 구분 | 지역 | 성별 | 나이 | 직업 | 맞벌이 여부 | 결혼 연차 | 자녀 계획 | 이상적 자녀 수 | 비고 |
|---|---|---|---|---|---|---|---|---|---|
| 1 | 경기 | 여 | 33 |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 맞벌이 | 6년 | 1명 | 3명 | 부부 |
| 2 | 경기 | 남 | 33 |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 | | 2명 | 2명 | |
| 3 | 경기 | 여 | 28 | 무직/취업준비생 | 남편 외벌이 | 2년 | 3명 | 3명 | 부부 |
| 4 | 경기 | 남 | 32 | 직장인(중소 · 중견기업) | | | 3명 | 4명 | |
| 5 | 서울 | 여 | 31 | 자유직(프리랜서 등) | 맞벌이 | 3년 | 1-2명 | 4명 | 부부 |
| 6 | 서울 | 남 | 36 | 직장인(대기업) | | | 2명 | 2명 | |
| 7 | 서울 | 여 | 32 | 직장인(중소 · 중견기업) | 맞벌이 | 2년 | 1명 | 2명 | |
| 8 | 서울 | 여 | 35 | 자영업/경영직 | 맞벌이 | 7년 | 1명 | 1명 | |
| 9 | 서울 | 남 | 31 | 직장인(중소 · 중견기업) | 남편 외벌이 | 2년 | 1명 | 2명 | |
| 10 | 경기 | 여 | 33 | 무직/취업준비생 | 남편 외벌이 | 2년 | 2명 | 2명 | |
| 11 | 서울 | 남 | 31 | 자유직(프리랜서 등) | 맞벌이 | 1년 | 2명 | 2명 | 임신 중 |
| 12 | 서울 | 여 | 34 | 전문직 | 맞벌이 | 1년 | 1-2명 | 2명 | 부부 |
| 13 | 서울 | 남 | 29 | 전문직 | | | 1명 | 2명 | |

정교화하였다.

표집은 새로운 개념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 상태에 이를 때까지 반복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부부 4쌍을 포함한 총 13명(남성 6명, 여성 7명)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2.2세이었으며, 구체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의 풍부함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 전 질문지를 사전 제공하여 참여자가 충분히 숙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1:1 대면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 참여자의 경우 2인이 함께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질문지는 연구 문제를 토대로 관련 문헌 고찰 및 전문가(심리학 박사 1인, 박사과정 1인)와의 논의를 거쳐 완성하였다. 주요 질문은 자녀 계획 및 출산 결정의 이유, 출산 계획이 변화한 경험, 자녀관, 환경(가족・직장・제도・사회문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경험, 출산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을 포함하여 출산 결정의 심리적 역동을 심층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면담 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자녀 계획에 관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 10분 간의 일상 대화를 통해 라포(rapport)를 형성하였다. 면담은 약 90-120분간 진행되었으며, 면담 종료 후 2만 원 상당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하되, 심화 추적 질문, 구체화 질문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실제 경험과 고민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Glaser(1992; 2014) 근거이론의 원칙에 따라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병행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새롭게 도출된 개념을 다음 면담의 질문에 반영함으로써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을 유지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 하에 녹음되었으며, 연구자는 현장 노트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반응이나 태도 등 비언어적인 표현과 연구자의 느낌이나 생각, 궁금증 등을 함께 기록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클로바노트(clovanote)[1]와 다글로(daglo)[2]를 활용해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Glaser(1992; 2014)의 근거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근거이론은 양적 연구로 포착하기 어려운 현상의 복잡한 맥락, 당사자의 경험,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강점을 가지며, 복잡한 사회현상 내 다양한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다(Creswell, 2015).

근거이론은 발전 과정에서 Strauss와 Corbin(1990)의 방법과 Glaser(1992)의 방법으로 분기하였다.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1990)은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선형적이고 인과적인 과정을 강조하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분석 절차를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코딩 패러다임이 인과관계를 강제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자칫 연구 모형이 자료를 변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권남옥, 김상학, 2025; Glaser, 1992; Walker & Myrick, 2006).

반면, Glaser(1992)의 방법은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이론, 분석 도구를 배제하고 범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출현(emergence)의 원리를 중시한다. 또한, 시간적 순서나 선형적인 과정 설명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론적 코딩(theoretical coding)을 통해 비교적 유연하게 현상을 실질

1) https://clovanote.naver.com/

2) https://daglo.ai/

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추상적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irks & Mills, 2015; Walker & Myrick,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산 결정의 선형적 과정보다 심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차원적 심리 요인들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하므로 Glaser의 근거이론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Glaser(1992)가 제시한 근거이론 절차를 따랐으며, 심리학 박사 1인과 박사 과정생 2인을 포함한 세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시작하였으며, 자료에서 드러난 개념과 범주를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였다. 이때, 선행 연구와의 비교는 자료에서 범주가 출현한 이후에 수행하였다. 분석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론적 메모(theoretical memo)를 작성하여 코딩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개념 간의 잠정적 관계를 기록하였다. 연구자들은 먼저 각자 수집된 자료를 읽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문을 발췌하고, 이론적 메모를 작성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면담 자료를 기반으로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고, 최종 이론적 모형을 생성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코딩 절차는 개방 코딩(open coding)과 이론적 코딩(theoretical coding) 순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자유롭게 검토하며 자료에 내재된 개념을 도출하고, 지속적 비교분석의 원칙에 따라 유사한 속성과 차원을 지닌 개념들을 묶어 15개 대범주, 28개 심리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론적 코딩 단계에서는 이론적 메모를 바탕으로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와 하위 범주들이 상호 간에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총체적인 이론적 틀을 형성하는지 구조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범주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성격, 범주 간 상호작용 방식, 핵심 범주와의 관계 등을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정교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범주들은 그 성격에 따라 개인, 관계, 조직, 제도, 사회문화의 5개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의 다차원적 접근과 부합하였으며, 출산 결정이 다차원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심리 과정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합의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병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일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와 해석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맥락과 결과를 상세히 기술(thick description)하여 독자가 연구의 전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참여자의 직접적인 발언을 제시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자료에 근거(grounded)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 결 과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출산 의사 결정 과정은 개인, 관계, 조직, 제도, 사회문화의 5개 차원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에서 도출된 심리적 요인들은 그 성격에 따라 '출산 결정 요인'과 '출산 유예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때, 출산 유예 요인은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확보될 때까지 그 시점을 미루게 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의 '출산 기피'와 구별된다. 출산 결정 요인은 주로 개인 및 관계 차원에서, 유예 요인은 제도와 사회문화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 각 차원의 심리적 요인과 구체적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출산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원별 출산 결정 및 유예 요인

| 차원 | 구분 | 대범주 | 심리적 요인 | 주요 내용 |
|---|---|---|---|---|
| 개인 | 결정 | 유데모니아적 행복관 | 자기수용을 통한 심리적 성숙 | • '있는 그대로의 나' 수용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경험 및 인식<br>•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태도 |
| | | | 긍정적 관계를 통한 삶의 의미 | •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가치 지향<br>• 비출산 결정에서 출산 결정으로 전환하는 주요 계기 |
| | | 부모됨의 성숙 및 행복에 대한 기대 | 성숙한 삶으로의 전환 | • 출산 후 부모로서 책임감, 인내심, 희생적 태도 등 심리적 자질의 함양에 대한 기대<br>• 부부 관계의 성숙에 대한 기대 |
| | | | 새로운 차원의 행복 | • 부모가 된 후, 감정적 풍요, 경험 확장 등 유데모니아적 행복 경험에 대한 기대 |
| | | 양육에 대한 낙관적 전망 | 이상적 자녀상 실현 | • '마음이 단단하고 따뜻한 아이'로의 성장 기대<br>• 자기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갖춘 주체적 개인의 성장을 낙관 |
| | | | 이상적 부모 역할 수행 | • 삶을 즐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역할 모델이자 조언자로서의 부모 역할 지향<br>• '좋은 부모'의 기준을 시간적, 심리적 자원으로 정의함으로써 부모됨의 준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역할 수행을 낙관적으로 전망 |
| | 유예 |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 | 양육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확신 | • 시간적,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자원의 종합적 고려<br>• 시간적, 심리적 자원의 강조<br>• 부모 효능감의 토대 |
| | | | 양육 자원 확보에 대한 의심 | • 주관적인 '경제적 불안정성'의 지각<br>• 시간 자원 확보의 불확실성<br>• 사회비교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및 경제적 부담의 증가 |
| 관계 | 결정 | 부부: 부부 공동 효능감 | 갈등을 통한 성숙 | • 부부 갈등을 통한 개인적, 관계적 성숙 경험<br>• 성찰과 성숙의 계기로 갈등을 수용하는 태도<br>• 부부 공동 효능감과 낙관적 태도의 토대 |
| | | | 소통 및 협력에 대한 신뢰 | • 협력적 가사 분담 및 육아에 대한 구체적 소통 경험<br>• 협력적인 육아에 대한 기대 |
| | | 부모: 안전한 보금자리 | 안전한 보금자리 | • 정서적 지지 경험, 출산 후 지지에 대한 기대<br>• 가족에 대한 태도 및 자녀관 형성의 배경적 요인 |
| | | 친구・동료: 양육 경험의 탐색 | 양육경험 관찰 및 정보습득 | • 지인이 자녀를 통해 유데모니아적 행복을 실현하는 모습 관찰<br>• 조카나 지인의 자녀와 교류하며 훈육, 감정조절의 예행연습<br>•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로서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봄 |

표 2. 출산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원별 출산 결정 및 유예 요인 (계속 1)

| 차원 | 구분 | 대범주 | 심리적 요인 | 주요 내용 |
|---|---|---|---|---|
| 관계 | 결정 | 친구 · 동료: 양육 경험의 탐색 | 사회적 지지 | • 정서적 지지, 육아 경험 전수, 육아 용품 공유 등 사회적 지지 기대 |
| | 유예 | 부부: 소통 및 협력에 대한 불확신 | 갈등 해결 경험의 부족 | • 만족스러운 부부 갈등 해결 경험이 부족하다는 인식<br>• 부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인식 |
| | | | 독박 육아에 대한 두려움 | •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구체적 소통 경험의 부족<br>• 본인이 가사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 |
| 조직 | 결정 | 심리적 안전감의 보장 |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 | •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마음 편하게' 사용하는 동료들 관찰<br>• 복귀 후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확인 |
| | | | 지지적 조직문화에서 확보된 통제감 | • 제도 운영을 지지하는 조직 문화를 경험<br>• 관리자의 실무적 노력과 직원 간 신뢰 및 투명한 정보 공유 |
| | 유예 | 정서적 위협 | 조직에 대한 불신과 고립감 | • 직장 내 배제와 낙오에 대한 두려움<br>• 조직 내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정서적 딜레마의 경험 |
| | | | 대안을 찾기 위한 고군분투 | • 시간 자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고군분투<br>• 조직에 대한 소속감 약화,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
| 제도 | 유예 | 시간적 · 심리적 자원 확보의 제도적 지원 부족 | 정책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 | • 금전적 지원 중심 출산장려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 |
| | | | 시간적 · 심리적 자원의 제도적 확보 요구 | • 장기적 관점의 '예측 가능성 확보'에 대한 요구<br>• 시간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 체계적인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
| | | 불행한 입시 경쟁 | 경쟁적 환경 인식과 정서적 위협 | • 서열 중심 교육이 자녀에게 남길 정서적 외상에 대한 걱정<br>• 적성 탐색 시간의 박탈에 대한 인식<br>•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
| | | | 가치관 위협 및 혼란 | • 자율성을 지지하는 자신의 양육관이 자녀를 뒤처지게 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br>• 사교육에 대한 양가적 태도<br>• 심리 · 시간 · 경제적 부담의 상승 및 부모 효능감 감소 |
| | | |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 | • 긍정적 관계를 맺기 힘든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br>• 자녀의 정서 발달, 긍정적 관계 지원에 대한 부모의 부담 증가 |

표 2. 출산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원별 출산 결정 및 유예 요인 (계속 2)

| 차원 | 구분 | 대범주 | 심리적 요인 | 주요 내용 |
|---|---|---|---|---|
| 사회 문화 | 결정 | 가치관 충돌 및 유데모니아 가치의 고수 | 부부만의 행복 추구와 미래 낙관 | • '사회적 기준과 나의 행복은 방향이 다르다'는 확신<br>• 유데모니아적 가치에 대한 확신과 부부 공동 효능감은 미래를 낙관하는 배경으로 작용 |
| | | | 다양한 행복이 수용되는 사회에 대한 요구 | • 평범한 삶이 존중받는 한국 사회에 대한 요구<br>• 자기 수용적, 관계 지향적 행복관의 사회적 실현에 대한 의지 및 기대 |
| | 유예 | 모두가 불행한 경쟁 사회 | 비교와 차별의 정답 규범 | • 전 생애에 걸쳐 획일적인 모범 답안을 강요하는 경쟁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br>• 일상화된 비교 평가와 서열화, 인격적 무시와 차별 |
| | | | 경쟁사회에서 불행할 자녀의 미래 | • 자녀가 일상적으로 서열 경쟁에 노출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br>• 시간·심리·경제적 자원의 준비 기준 상향 및 부모 효능감 감소<br>• 경쟁적 현실과 유데모니아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심리적 혼란 |

### 개인 차원: 자율적 결정의 토대

개인 차원에서는 '유데모니아적 행복관', '부모됨의 성숙과 행복에 대한 기대', '양육에 대한 낙관적 전망',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의 네 범주로 범주화되었다. 출산 결정에서 참여자들은 공통되게 경제적 성취를 넘어선 '심리적 성숙과 삶의 의미'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각 범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에게 유데모니아적 행복관은 부모됨을 성숙과 행복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재해석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녀를 동반자로 의미화하였고, 이에 따라 부모가 되기 위한 경제적 문턱을 낮게 지각하고 심리적으로도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며, 자신의 주체적 준비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이러한 연쇄적 연결에 균열이 생길 때, 부모됨의 주체적 준비도에 대한 평가가 낮아져 출산 유예로 이어지는 역동도 발견되었다.

#### 출산 결정 요인

**유데모니아적 행복관.** '유데모니아적 행복관'은 참여자들이 삶 전반에서 내면화한 가치 지향으로, 성장과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행복의 본질이 '자기수용'과 '심리적 성숙', '긍정적 대인관계'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자기수용(self-acceptance; Ryff, & Keyes, 1995)은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태도로, 참여자들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정의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려는 주체성을 보였다.

> "저희는 자아가 좀 탄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크게 남들의 시선이나 비교를 잘 하지 않아요. (중략) 나의 능력과 상황과 분수 안에서 잘 꾸려나가는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13

또한, 참여자들은 갈등과 화해를 경험하는 긍정적 관계 속에서 성숙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행복의 본질이 긍정적 대인관계에 있다는 데 높은 확신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이러한 관계 중심적 행복관을 확립하면서 과거의 비출산 결정을 번복하였는데, 경제적 결핍을 이유로 비출산을 선택했던 참여자들은 삶의 의미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자녀를 경제적 손실이나 희생 아닌 '삶의 가치를 완성하는 존재', '삶의 이유'로 재구성하였다.

> "우리가 뭘 하면서 그런 게(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별 다를 것 없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너무 행복감을 느꼈어요. (중략) 둘이서 그냥 차 끌고 나가서 집 앞에서 밥 사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호떡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에요. 그냥 그 자체가. (중략) 살다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만큼 삶의 이유가 되는 게 있을까... "- 참여자 1

이처럼 부부 관계에서 경험한 일상의 행복이 삶의 의미 탐색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자녀를 삶의 이유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됨의 성숙 및 행복에 대한 기대.** 참여자들은 부모됨을 성숙과 행복의 기회로서 인식하였다. 이들은 부모가 됨으로써 책임감, 인내심, 희생적 태도와 같은 심리적 자질이 함양되는 '성숙한 삶으로 전환'을 이룰 것이라 기대하였으며,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키우며 겪는 공동의 경험을 통해 부부 간의 연결감이 심화하는 관계적 성숙 또한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 "(부부 관계를 생각했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 아이가 없으면 오히려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중략) 아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깊어질 수 있고. 아이가 없다는 건 사실은 그냥 부부지 부모는 아니잖아요. (중략)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 참여자 4

나아가,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감정적 풍요'와 '경험의 확장'을 '새로운 차원의 행복'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부모됨의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더라도 가치 있는 성장으로 의미화하는 양상은 자아실현과 삶의 의미를 행복의 본질로 보는 '유데모니아적 행복관(King & Hicks, 2012)'과 맞닿아 있었다. 부모됨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 기대 속에서 참여자들은 출산 이후 맞이할 변화와 불확실성을 위협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수용하였다.

> "애가 있으면 훨씬 더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어질지 몰라도 내 삶의 감정, 경험 그런 것들은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 참여자 1

**양육에 대한 낙관적 전망.** 참여자들은 자녀를 부모와 함께 성숙과 행복을 실현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자녀관은 '이상적 자녀상 실현'과 '이상적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구체화되었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린 이상적 자녀의 모습은 '마음이 단단하고 따뜻한 아이'로 요약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정의한 행복의 본질인 '자기수용을 통한 성숙(단단한)' 및 '긍정적 대인관계(따뜻한)'와 상응하였다. 참여자들이 그린 이상적 자녀 상에는 본 연구에서 '유데모니아적 행복관'으로 명명한 이들 자신의 행복관이 반복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양육의 목표를 '경쟁에서의 성공'이 아닌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으로 삼게 하였다.

"고비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단단하기도 하지만 따뜻하면서 사랑이 많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8

참여자들이 지향하는 이상적 부모 역할은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즐기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태도를 몸소 보여주는 역할 모델(role model)이자 조언자(guidance)로서의 수행이었다. 참여자들은 부모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삶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 역시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믿었다.

"열심히 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미래를 계획하지만 여기에 집중하는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걸 닮은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최대한 열심히 즐겁게 최대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잘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봐야죠."- 참여자 11

참여자들은 이러한 이상적 부모 역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부모가 되기 위한 경제적 기준을 낮게 설정하였다. 이상적 부모 역할에 필요한 것이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시간적, 심리적 여유와 일관된 가치관이라고 인식할 때, 참여자들은 준비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주체적 준비도를 더욱 높게 평가하였다.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금전적 부분) 때문에 낳지 못하고 낳아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중략) 좋은 부모는 일단 충분한 정서적 교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이 때마다 자기가 고민하는 것들을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조언해주면서 실제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면 되지 않을까." - 참여자 3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상적 부모가 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네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실천은 외부 환경보다 본인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적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첫째,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드는 부모', 둘째, '대화를 나누고 기다리는 부모', 셋째, '책임과 한계를 알려주는 부모', 넷째, '행복한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애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걸 100% 케어는 못 하겠지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모." - 참여자 11

"(아이가) 늘 완벽하고 좋은 선택만 하리라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완벽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설령 틀리더라도 아이가 또 틀린 길을 가는 거를 지켜보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여자 13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심어줘야죠. 그렇게 다 가지려고 하면 이기적이고 약간 사회생활도 못 할 수 있어요." - 참여자 10

"엄마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엄마 일을 후회한다면 아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중략)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 아이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8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 양육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확신.** 참여자들이 스스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는 '지각된 준비도'와 그에 따른 부모 효능감은 출산 결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최종적인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즉, 출산 결정과 실제 임신 준비는 객관적인 상황 자체보다는 개인이 그 상황을 얼마나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이라 해석하는지에 따라 좌우되었다.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 평가는 앞서 참여자들의 자녀관에서 출현한 유데모니아적 가치 지향과 긴밀히 맞물렸다. '좋은 부모'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원의 준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제적 풍요보다 시간적 · 심리적 여유를 우선시하는 이들의 자녀관은 비교적 낮은 경제적 조건에서도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시간적,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자원의 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가 될 준비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특히 시간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시간적 자원의 경우,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육아시간 확보를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직업 생활 중에도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시간에 대한 통제감'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러한 통제감 속에서 주체적 준비도를 높이고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느꼈다.

> "지금이 (임신, 출산에) 최적인 것 같은 게 지금은 제가 없어도 제 역할을 파트타임 알바를 고용해서 하고 제가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하면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시간 확보가 가능하니까)." - 참여자 7

둘째, 심리적 자원의 경우 정서 조절 능력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포용적인 태도, 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이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원으로 강조되었다. 참여자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적 습관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심리 자원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으며, 화목한 가정에서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 "그날 기분이 좀 안 좋고 짜증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애한테 풀면 어떡하지? (중략) 버럭한다던가 이런 게 다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그거를 되게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중략) 나도 이런 습관이 있을 수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그게 막 완벽히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해야겠다."- 참여자 5

셋째, 경제적 자원의 측면에서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확보는 출산 결정의 필수 요건이었으나, 그 기준은 경제적 풍요보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관적 예측 가능성'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LH 행복 주택 거주나 전세 연장 가능성과 같이 비교적 단기적인 미래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충분한 안정성을 느꼈으며, 자녀를 경제적 부담이 아닌 삶의 동력으로 인식하며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였다.

> "(비출산을 결정했었던 과거에는 10억을 모아야 아이를 낳는다고 했었는데) 일단 낳고 10억 모으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동력이 필요해요. 직장을 안 그만두는 동력."- 참여자 2

마지막으로, 신체적 자원의 경우 참여자들은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출산에 따른 신체 변화와 체력적 요구를 성숙과 행복을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수용하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출산 유예 요인**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 양육 자원 확보에 대한 의심.** 반면, '양육 자원 확보에 대한 의심'은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 평가를 낮추어 출산 유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육아를 위한 시간적, 심리적 자원의 확보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을 낳았다.

> "지금 아이를 낳는다면 이도 저도 안될 것 같아요. (중략) 내 마음이 좀 여유롭고 편안해지면 아이가 사소한 짜증을 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참여자 8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비교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자원의 준비도에 대한 의구심을 보다 깊이 느꼈다. 사회비교가 만연한 경쟁적 환경이 강조될 때, 참여자들은 미래에 자녀가 마주할 경쟁 환경을 미리 상상하며 사교육 압박과 가치관 충돌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였고, 자신이 확보한 유데모니아적 가치 지향의 심리적 자원만으로 경쟁 환경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의 유데모니아적 가치관이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자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걱정 속에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낮게 지각하고, 스스로 요구하는 자원의 기준을 높였으며, 자신이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더욱 의심하게 되면서 출산을 유예하였다.

> [지인의 아이가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나만 안 다녀' 또는 '친구들은 다 아이폰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아니야'라고 비교하는 사례를 이야기하던 중] "안 되겠어요. 저는 (학원에) 다 보내야겠어요. 왜냐하면 그 학원 친구들도 있는 거고. (중략) 나는 이게(유데모니아적 가치를 지향하는 삶) 좋은 삶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또 아이의 판단이나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내 가치를 어디까지 설득시키고 이런 게 좀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 참여자 12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시간 자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지각하면서 도우미 등 외부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고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적 준비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며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 "맞벌이면 아이를 어디 보낸다고 해요. 등하원 시켜야하는 사람이 있는거고. (중략) 결국에는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참여자 12

이러한 유예 요인들은 개인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였는데,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제도 차원)과 경쟁적 환경(제도, 사회문화 차원)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수록 경제적 준비 기준과 가치관 혼란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부부 공동 효능감을 통해 이러한 불안을 상쇄해 나갔다. 참여자들은 모든 걱정을 미리 해결하려 하기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배우자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며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 출산 포기가 아닌 자원이 확보될 때까지 출산을 유예하는 선택을 하였다.

> "문제 상황에 닥치면 충분히 또 고민하고 대화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한 아이가 한 20년 동안 성년으로 자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고민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보면 못 낳을 것 같긴 해요." - 참여자 13

### 관계 차원: 신뢰와 지지의 네트워크

관계 차원에서는 부부, 부모, 친구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출산 결정 혹은 유예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동이 발견되었다. 특히, 관계 차원의 심리적 요인들은 개인 및 조직 차원과 상호작용하였는데, 참여자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유데모니아적 행복관을 검증하고, 이를 강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부부 공동 효능감은 조직 차원의 제약을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직장이 힘들어도 우리 부부가 함께라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신뢰는 조직 차원의 제약을 출산 포기가 아닌 출산 유예의 이유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출산 결정 요인**

**(부부)부부 공동 효능감.** 참여자들의 출산 결정은 배우자와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확정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부 갈등 속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고통을 겪었으나, 이를 성찰과 성숙의 계기로 수용하였다. 갈등 해결을 위한 배우자와의 적극적 소통과 인내의 과정은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러한 개인적 및 관계적 성숙 경험은 유데모니아적 행복관을 심화하는 동시에 부모가 되어 마주할 난관도 배우자와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의 근거가 되었다.

>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잘 되지 않겠냐. 그래 파이팅하자. 우리 한 배를 타고 같이 열심히 가보자." - 참여자 11

또한, 평소 협력적으로 가사 노동을 분담하고, 육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경험은 미래의 육아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어 강력한 출산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여성 참여자들에게 배우자의 소통 능력과 가사 참여에 대한 확신은 출산 결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육아가) 좀 더 전투적이겠지만 걱정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사에도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참여자 6

이처럼, 부부 공동 효능감(Kaplan, 2002)은 '부부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적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공유된 확신'으로, 개인이 독립적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인 부모 효능감(Bandura, 1997)을 넘어, 배우자와 협력하여 외부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유데모니아적 행복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상호 신뢰의 형태로 발견되었다. 이는 갈등 해결 경험을 통해 축적된 관계적 역량을 바탕으로, 출산 후 삶의 불확실성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부모)안전한 보금자리.** 일부 참여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는 출산 결정의 직접적 동기보다 가족에 대한 태도와 자녀관을 형성하는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일부 참여자들은 가족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우선시하는 자녀관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부모의 돌봄 조력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 "(아내 집에) 가면 진짜 집에 온 느낌. 진짜 쉬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러면 되겠다. 가정이라는 게 이러면 되는 거겠다."- 참여자 2

**(친구 및 동료) 양육 경험의 탐색.** 참여자들은 지인들이 자녀를 통해 유데모니아적 행복을 실현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자녀를 통한 성숙과 행복 실현이 자신의 가치 체계와 일치함을 느꼈다. 이들은 육아 중인 친구나 동료들이 정서적 지지와 육아 경험 전수, 육아용품 공유 등 실질적 지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지 네트워크의 존재는 부모로서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조카나 지인의 자녀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며 훈육과 감정 조절을 예행 연습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자와 논의하는 과정은 양육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사실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조카랑 넷이서 놀 때 너무 재밌는거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중략) 조카가

막 투정 부릴 때, 달랠 때도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달래야 될까. (중략) 애 키우면 이런 건 어렵겠구나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 참여자 13

**출산 유예 요인**

**(부부) 소통 및 협력에 대한 불확신.** 부부 간 '갈등 해결을 통한 성숙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거나 배우자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인식할 때 참여자들은 출산을 유예하였다. 배우자와 자녀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육아 현실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느꼈으며, 배우자의 가사 참여도가 낮거나 육아 분담에 안일한 태도를 보일 경우 여성 참여자들은 '독박육아'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유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우리 부부는 함께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배우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으며, 두 감정이 공존하는 가운데 출산 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루었다.

"남편은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주의라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거기서 그 때 그 때 해결하면 되지 뭘 미리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거를 뒤치다꺼리하는 건 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육아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싶은 거에요. 근데 그런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참여자 7

### 조직 차원: 직장 내 정서적 위협과 소속감

조직 차원의 심리적 요인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육아을 위한 시간 자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주는가에 따라 출산 결정 요인인 '심리적 안전감의 보장'과 유예 요인인 '정서적 위협'으로 범주화되었다. 참여자들은 법적 제도의 유무보다 이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내 심리적 안전감을 시간 자원 확보의 실질적 기준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조직 차원은 개인 차원에서 형성된 '시간에 대한 통제감'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는데, 개인이 아무리 시간적 자원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조직이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출산 결정 요인**

**심리적 안전감의 보장.** 출산을 결정한 대다수 참여자는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육아시간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조직 환경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불이익 없이 제도를 사용하고, 이를 지지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될 때 비로소 출산 결심을 굳혔으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와 '지지적 조직 문화 속에서 확보된 통제감'을 통해 실현되었다.

참여자들은 동료들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귀 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모습을 관찰하며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러한 경험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비출산을 고려하던 참여자들에게 출산을 긍정적으로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직장에서 굳이 안 낳는 게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돼있어요. 그게 커버를 해준 거 같아요." - 참여자 1

이러한 심리적 안전감의 보장은 제도의 운용을 지지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될 때 완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관리자가 직원의 경력 개발을 고려해 상담을 실시하거나, 합리적인 업무 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무적인 노력을 보일 때 조직의 지지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다. 또한, 동료 간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상호 신뢰가 전제될 때, 참여자들은 미안함이나 부채감 없이 시간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표님이 (중략)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거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로 좋은 의견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좋은 조직 만들어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안심은 있죠." - 참여자 4

**출산 유예 요인**

**정서적 위협.**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육아 시간 지원이 부재한 조직에서 '정서적 위협'을 경험하고 있었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은 '조직에 대한 불신과 고립감'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출산을 유예하고 개인적 '대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육아에 적대적인 조직에서 육아휴직은 '회사에 부적응하거나 동료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는 낙인과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져 직장 내 도태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였다. 특히, 보충 인력 지원이 미비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휴직자의 업무가 동료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임신한 동료에 대한 축하와 원망 사이의 정서적 딜레마를 낳았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조직 내 배제와 낙오를 두려움으로 경험하였으며, 이는 육아 시간 자원의 확보를 불확실하게 지각하게 하여 출산 유예로 이어졌다.

"아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지금 조금 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참여자들은 육아에 적대적인 문화를 개인의 인식 부족의 문제가 아닌, 인력 운용과 평가 제도 결함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이를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이들은 정서적 위협을 경험할수록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되었고, 시간 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은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육아 병행을 위해 경력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등 시간 자원의 가용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출산을 미루었다.

"직장은 눈을 낮추거나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면 되는데 (중략) 내 시간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직업을 하고 싶은 거에요."- 참여자 10

특히 남성 참여자의 경우, 조직의 미지원으로 인해 배우자가 짊어질 양육과 경력 중단에 대한 미안함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 정서는 부부 모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으나, "우리 둘이서 어떻게든 해보자."는 부부 공동 효능감은 출산 포기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출산 유예를 선택하는 근거가 되었다.

### 제도 차원: 구조적 불신과 경쟁적 교육환경

제도 차원에서는 출산 유예 요인만이 발견되었으며, '출산장려정책의 본질적 개선 부재'와 '불행한 입시 경쟁'의 두 범주가 도출되었다. 제도 차원 요인들은 개인 차원의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정책에 대한 불신은 시간적 · 심리적 · 경제적 자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체적 준비도 평가를 낮추고, 입시 경쟁에 대한 불안은 자녀관에 대한 혼란을 높여 주체적 준비도를 저하시켰다.

**출산 유예 요인**

**시간적 · 심리적 자원 확보의 제도적 지원 부족.**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기대를 하지 않았으며 '정책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 금전적 지원 중심의 현행 정책은 장기적인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원금 도입과 동시에 산후조리원 등 관련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의 목격은 정책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 결국, 시간적 및 심리적 자원의 확보는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졌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출산을 유예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 달에 100만원씩 1년 동안 주는 게 생겼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중략) 그냥 아예 일단 고려를 안 하고."- 참여자 9

이에 따라,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단기적 보상보다 장기적 관점의 '예측 가능성'과 '시간적·심리적 자원의 제도적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발견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양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 부모교육, 공간이나 보상이 아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 등 출산 정책의 목표가 예비 부모들의 장기적 미래 설계의 토대 마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부모교육 같은 것들이 회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거나.. (중략) 막연한 상황 속에서 걱정을 하는 건데 실제 교육을 받아 보면 아이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 4

**불행한 입시 경쟁.** 참여자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가 미래 자녀의 행복을 저해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지향하는 유데모니아적 자녀관과 충돌하여 양육에 대한 심리적 및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핵심 원인이었다.

특히, 입시 경쟁의 환경은 교육비 부담을 넘어서는 심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서열 중심의 교육이 사회비교, 평가 불안, 상대적 박탈감 등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외상을 입힐 것이라 우려하였으며, 자녀의 적성 탐색 시간의 박탈은 성숙하고 행복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 인식하였다. 이는 '경쟁적 환경 인식과 정서적 위협'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경쟁 교육 환경은 부모가 '가치관 위협 및 혼란'을 경험하는 환경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경쟁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녀가 그 안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부모가 되기 위한 주체적 준비도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이의 성적이 나오고 또는 아이가 '내가 뭐가 되고싶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참여자 12

또한, 참여자들은 성적 중심의 서열화가 학생 간의 차별과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의 배경이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학교를 긍정적 관계를 맺기 어려운 환경으로 지각하였으며, 이러한 지각은 자녀를 경쟁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서적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화하여, 심리적, 시간적 자원에 대한 부담을 한층 무겁게 느끼게 하였다.

"요즘 초등학생들 전세 사는 애 이런 걸로 따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애들과 같이 어쨌든 한 무리에 섞여서 놀게 되는 거니까" - 참여자 1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에게 경쟁적 교육환경은 부모됨의 주체적 준비도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불안을 키우는 강력한 요소로 경험되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부부 공동 효능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낙관하며, 부부 간 대화나 심리적 성숙을 통해 충분한 내적 자원이 확보되고, 안전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경제적 자원이 마련될 때까지 출산을 유예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

### 사회문화 차원: 경쟁사회 인식과 가치관의 충돌

사회문화 차원에서는 '모두가 불행한 경쟁사회'라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자녀의 고통스러운 미래를 예견하게 하여 출산을 유예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자신의 '유데모니아적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즉, 경쟁사회에 대한 인식이 출산 포기로 이어지기보다는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려주겠다'는 적극적 동기로 전환되는 역동이 발견되었다.

**출산 유예 요인**

**모두가 불행한 경쟁사회.**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를 전 생애에 걸쳐 획일적인 모범 답안을 강요하는 '비교와 차별의 정답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답 규범은 물질주의, 학벌주의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끊임없이 비교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잣대가 되며, 참여자들은 인격적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경쟁 구조에 어쩔 수 없이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 "우리나라는 모닝을 타도 부자가 되고 나서 모닝을 타야돼요. (중략) 거지가 모닝을 탄다? 그냥 끝난 거에요."- 참여자 2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녀 역시 서열 경쟁에 노출되리라 전망하였으며, '경쟁사회에서 불행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전망 속에서 부모로서 투입해야 할 자원의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였고, 그 결과 스스로의 주체적 준비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적, 심리적, 경제적 자원을 요구받는다고 인식하였으며, 자신의 유데모니아적 자녀관이 현실의 경쟁 논리와 충돌할 때 깊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였다. 특히, 자녀의 주체성을 지켜주기 위해 부모에게 요구되는 '용기'가 스스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이상적 부모관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모호성은 주체적 준비도를 낮추는 방해 요인이 되었다.

> "평가하고 구별짓고 구분짓고 하는 걸 생각하면 중간 이상의 선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나조차도 드는데 아이는.. (침묵)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드니까.."- 참여자 12

>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중략) 그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에요." - 참여자 11

**출산 결정 요인**

**가치관 충돌 및 유데모니아적 가치의 고수.**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삶'의 모범이 명문대 진학, 사회적 성공으로 획일화되어 있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거야' 또는 '우리 사회는 행복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근거나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유재석 같은 1인자 말고 누구나 될 수 있는 평범한 삶 중에서 행복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참여자 13

이러한 사회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행복관이 사회적 '오답'으로 취급받는 가치관 충돌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에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충돌을 통해 유데모니아적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고수하는 독특한 심리적 기제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성숙 및 관계를 통한 행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준과 나의 행복은 방향이 다르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경쟁

사회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옳은지를 역설적으로 확인하는 배경으로 수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범한 삶이 존중받는 '다양한 행복이 수용되는 사회'에 대한 요구는 자신이 유데모니아적 가치관에 기반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겠다는 능동적 태도로 이어졌다. 즉, 참여자들에게 출산은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삶으로 실천하고 자녀에게 전달하려는 주체적 선택이었다.

> "세상이 각박하고 어두운 면이 많으니까 (중략) 근데 결론적으로는 '맞아. 이런 행복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이런 행복을 알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6

## 논 의

본 연구는 서울·수도권 지역 무자녀 기혼 남녀 13명의 심층 인터뷰를 Glaser의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5개 차원 15개 대범주에서 16개의 출산 결정 요인과 12개의 출산 유예 요인을 도출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5개 차원은 출산 결정이 개인, 관계, 조직, 제도, 사회문화의 다차원적 맥락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며,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다차원적 접근(Hashemzadeh et al., 2021; Kim & Yi, 2024)과 사후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서울·수도권 무자녀 기혼자의 출산 결정 과정 모델'을 구축하였다(그림 1 참조). 본 모델은 개인의 출산 결정이 환경에 따른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가치 지향과 환경적 제약에 대한 주체적 평가가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심리 과정임을 제안한다.

먼저, 출산 결정의 실질적인 시작은 정책적 혜택이나 경제적 여건의 개선보다 개인의 '유데모니아적 행복' 경험과 가치관 확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차별적인 경쟁 사회와 입시 위주 교육제도의 폐해를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자녀를 경제적 부담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행복의 동반자'로 정의할 때 부모로서의 성숙과 행복을 기대하며 잠정적으로 출산을 결정하였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충만함은 쾌락주의적 행복관이 유데모니아적 행복관으로 전환되거나, 그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핵심 역동에 더하여,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는 가족을 '안전한 보금자리'라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유데모니아적 자녀관을 형성하는 보완적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사회로 올수록 자녀가 부모의 자아실현과 애정 등 정서적 가치의 원천이 된다는 자녀가치론(Nauck, 2014)을 지지한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 성숙과 삶의 의미를 실현하려는 욕구를 보였으며, 이는 정서적 가치가 유데모니아적 행복관과 결합될 때 출산 결정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와 자아실현 가치로의 사회적 전환이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Lesthaeghe, 2010)의 가설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이론에 따르면, 자아실현과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가치 지향은 자녀 양육이라는 '구속'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출산은 오히려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하는 능동적 계기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실현의 추구가 반드시 출산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자아실현이 유데모니아적 행복과 연결될 때 동일한 사회구조와 부모됨의 의미 역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데모니아적 가치를 지향하며, 자율적으로 출산을 선택한 개인에게 부모됨은 자아의 실현과 확장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율적 동기에 기반한 출산이 부모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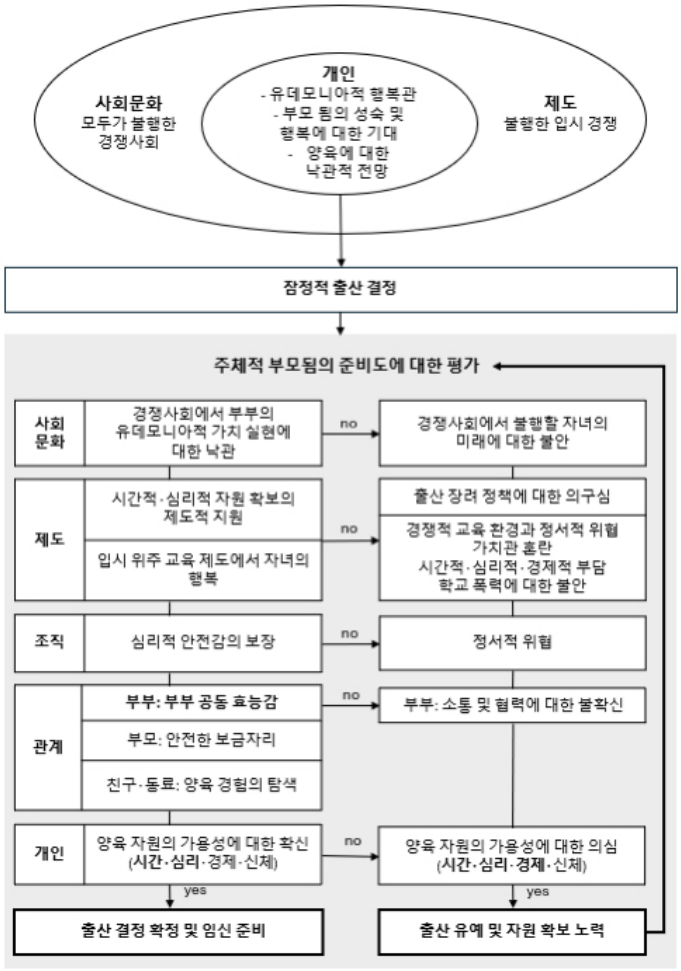



그림 1. 서울 · 수도권 무자녀 기혼자의 출산 결정 과정 모델

종단 연구(Nachoum et al., 2021; 2023)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잠정적 출산 결정 이후의 과정은 이를 확정하기 위해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개인, 관계, 조직, 제도, 사회문화의 5개 차원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제약과 지지 체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시간적 · 심리적 · 경제적 · 체력적 자원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보완해 나갔다. 특히, 참여자들은 유데모니아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간적 · 심리적 자원의 운용 가능성에 집중함으로써 경쟁과 차별의 구조적 위협에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 자원의 지원에 편중된 현행 정책 방향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괴리는 정책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시간적 · 심리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적 요구로 이어졌다.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가 확보될 때, 즉 다차원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확신이 형성될 때, 참여자들은 잠정적 출산 결정을 확정하고 임신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출산 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주관적 통제감'이며, 주거, 돌봄 자원, 배우자의 협조 등이 주관적 통제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계획된 행동이론 관점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김정연, 김영주, 2022; 한경미, 정혜선, 2010).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은 주관적 통제감과 출산 의도를 선형적 관계로 제시하는 반면, 본 연구는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를 평가하고, 보완하며 출산 확정 또는 유예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심리 과정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제적 자원의 확보가 객관적 수치보다 출산 이후 미래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 즉, '주관적 예측 가능성 '에 근거하여 평가된다는 점이었다. 참여자들은 절대적인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주관적 확신이 있을 때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이보라, 2020)와 일치하며, 객관적 환경의 마련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실질적으로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친구나 동료를 통한 대리 경험과 관찰학습(Bandura, 1977), 정보적 지지는 양육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체적 준비도를 높이는 보완적 기제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출산 이후 삶을 시뮬레이션하고, 출산 결정을 조정한다는 사회적 확산이론(Montgomery & Casterline, 199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부가 '공동의 역량으로 육아를 잘 해낼 수 있겠다'고 최종 판단할 때 출산 결정은 확정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부 공동 효능감'이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 해결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 부부 갈등과 낮은 관계 만족도는 출산 의도를 저해하는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나(Barber et al., 2019; Kim & Yi, 2024),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갈등은 관계적 역량과 성숙을 확인하고 공동 효능감을 형성하는 계기였다. 나아가, 출산 결정이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부부라면 함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 불안을 넘어설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부 공동 효능감이 단순한 낙관보다는 현실적 불안을 직시하고, 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관계적 신뢰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배우자와 자녀 계획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만으로도 불안과 불신이 감소하는 양상은 부부 간 소통 자체가 공동 효능감 형성의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유데모니아적 행복관이 '왜 부모가 되고자 하는가'의 가치관적 토대를 제공한다면, 부부 공동 효능감은 '우리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계적 확신을 제공하며, 두 요인은 서로를 강화하여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를 높이는 주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한편, '주체적 부모됨의 평가' 결과가 항상 출산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준비도가 낮게 평가될 경우, 이는 출산 포기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주체적 노력으로서의 출산 유예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준비도를 재평가하는 순환적 과정으로 연결되었다.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의 관점에서 낮은 출산 의향은 출산 행동의 부재로 해석되지만,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출산 유예 또한 주체적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단순히 '출산하지 않는 선택'의 총합이 아니라, '출산을 미루는 선택'과 혼재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정책의 대상을 출산 포기 집단과 유예 집단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로, 본 연구는 출산 결정 과정에서 나타

나는 성별에 따른 질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여성 참여자의 경우, 양육 책임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 즉, '독박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한 가사 및 돌봄 분담에 대한 기대가 기혼 여성의 출산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다(Kim & Yi, 2024). 반면, 남성 참여자들은 육아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때 무력감과 미안함이라는 이중 부담을 경험하였다. 성별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육아의 현실에 부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관계 차원에서 두드러졌으나, 조직 내 경직성,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개인 또는 관계적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발견을 종합하면, 출산 결정은 각 차원의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형성된 유데모니아적 행복관은 부부관계에서의 정서적 충만함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구축된 부부 공동 효능감은 조직 차원의 구조적 제약을 출산 포기가 아닌 출산 유예의 이유로 수용하게 하는 완충 기제로 작용하였다. 특히, 배우자와의 가사 분담에 대한 신뢰는 육아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관계-조직 차원 간 핵심 상호작용 기제로 작용하였다.

한편, 사회문화 차원의 경쟁적 사회 분위기는 출산 유예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유데모니아적 가치관이 얼마나 옳은지 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고히 고수하게 만드는 동기로도 작용하였다. 반면, 제도와 사회문화 차원에서의 부정적 인식, 즉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와 경쟁적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은 개인 차원의 주체적 준비도 평가를 낮추고 경제적 준비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유데모니아적 행복관과 부부 공동 효능감이라는 심리적 자원에 의해 상쇄되어, 출산 포기보다는 출산 유예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출산 결정을 둘러싼 다차원적 심리 기제를 귀납적으로 이론화하여, 개별 변인 중심의 기존 연구가 설명하지 못했던 출산 결정의 과정적 역동을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소득, 주거, 고용상태 등 객관적 지표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왔으나, 동일한 객관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출산 결정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환경적 조건이 개인의 내면에서 가치 지향, 관계적 신뢰, 조직 내 경험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방식을 귀납적 과정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양적 연구의 설명을 보완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저출산 현상이 단순히 '출산하지 않는' 결정들의 총합이 아니라, 능동적 유예의 심리적 역동이 혼재되어 있음을 포착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정책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경쟁적 환경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것을 넘어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기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를 낮추는 심리적 기제임을 밝힘으로써,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심리 과정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질적 연구로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출산 의향이 형성된 무자녀 기혼자로 한정되었으므로, 출산 결정이 실제 출산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주체적 부모됨의 준비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유데모니아적 가치관, 부부 공동 효능감 등 본 연구에서 발견된 다차원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실제 출산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대규모 표본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별 차이는 탐색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 지역과 무자녀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멸 위기 지역 거주자나 유자녀 가구의 추가 출산 결정 기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과 지역적 범위를 확장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무자녀를 확정한 집단 또는 출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집단 등 청년층 내 다양한 하위 집단별 심리적 특성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작업은 청년층이 자율적으로 기꺼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율적 출산 동기가 부모 효능감 및 양육 태도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Nachoum et al., 2021, 2023), 이러한 접근은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질적인 내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출산 결정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육아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장과 함께 이것이 조직 내 심리적 안전감과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 유지와 남성의 육아 참여 의지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 및 시행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러한 제도적 및 구조적 변화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제도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전환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체제 아래에서 부모가 자녀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좌절감, 학교폭력 등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쟁적 구조에서 부모가 갖춰야 할 자원의 기준은 비현실적으로 높아지며, 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자원 확보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삶이 경쟁과 좌절로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선행될 때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저출산 정책은 외부 장벽의 제거를 넘어 청년들이 출산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심리적 동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유데모니아적 행복관과 부부 공동효능감이라는 심리적 자원이 환경적 조건과 결합될 때 비로소 출산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본 연구의 발견을 근거로, 부부 관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생애 설계 지원 등 심리적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명시하기 시작한 흐름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삶의 질'이 즐거움과 만족을 의미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관점보다는 삶의 목적을 실현하고 개인의 성장을 경험하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관점에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 해법은 청년들이 구조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부모됨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 저자소개

안정민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회 및 문화심리 전공 박사 졸업하였으며, 정당성 지각, 체제정당화, 저출산을 비롯한 사회문제와 사회

통합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서예지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회 및 문화심리 전공 박사 졸업하였으며, 사회적 안녕감, 사회문제, 사회통합, 사회적 연결감, 친사회적 행동, 감사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정태연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와 문화, 사회문제, 한국인의 성인발달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권남옥, 김상학 (2025).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근거이론 비교: 공무원의 감정노동 연구사례 적용. **사회과학연구**, 64(1), 183-204.

김경근, 최윤진 (2017). 교육열 현상으로서의 저출산: 중산층 기혼자의 자녀 수 결정 배경과 양육방식. **교육사회학연구**, 27(2), 1-34.

김근태 (2024). 청년의 불안감과 출산의도의 관계: 초점집단 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7(2), 1-32. https://doi.org/10.31693/KJPS.2024.06.47.2.1

김미숙. (2015). 자녀가치 국제비교. **보건복지 Issue & Focus**, 284, 1-8. https://doi.org/10.23064/2015.06.284

김민우 (2020). 기혼여성의 취업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교육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사회복지연구회**, 2, 1-22.

김영미 (2023).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보건복지포럼**, 317(1), 2-5.

김인경 (2017).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정책연구시리즈, 17-06).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연, 김영주 (2022).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 영향요인: 계획적 행위이론 적용. **산업융합연구**, 20(5), 93-100.

김지성, 김유민 (2023).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행정, 정책학 연구 경향과 과제: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의미형성 관점에서. **국가정책연구**, 37(1), 97-122.

민규량. (2020).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정민, 박호준, 이서경 (2022).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53(4), 33-54.

배광일 (2020). 기혼여성의 출산행위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첫째 자녀출산과 둘째 자녀 출산의 비교. **사회복지연구**, 51(1), 275-301.

배호중, 한창근, 양은모 (2017). 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7(2), 5-40

서정원, 김혜란 (2021).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의 맥락에서 추가출산 의향과 부모효능감에 대한 질적연구. **아시아여성연구**, 60(2), 119-150.

신민영 (2021). 기업의 가족친화제도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매개하여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8(1), 27-55.

안윤숙, 이상호. (2010). 공보육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3, 227-258.

연합뉴스 (2025. 12. 12). 신혼부부 95만쌍으로 역대 최저...절반이 무자녀. yonhapnewstv.co.kr/news/MYH202512122319244Xh

육아정책연구소 (2025). **결혼 · 출산 ·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명진 (2023).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TDIB 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41-166.

이병호. (2020). 제2차 인구변천 이론, 1986-2020: 특징, 논쟁, 함의. **한국인구학**, 43(4), 37-68. https://doi.org/10.31693/KJPS.2020.12.43.4.37

이보라 (2020).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6, 167-188.

이상림 (2025). 저출산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비판적 분석. 한국인구학, 48(1), 1-26.

이상협, 이철희, 홍석철 (2016).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보고서 2016-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합뉴스 (2025. 12. 12). 아이 안 낳는 신혼부부 '역대 최다'...절반은 무자녀. 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1212231 9244Xh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국민WE원회 저출생 대책 평가 및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406&listLen=20&searchKeyword=&position=M

전승봉 (2020). 직무긴장,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가사노동 분배가 OECD 국가들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8), 251-261.

정미숙, 김준수 (2021). 여성의 사회자본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남편 육아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3(3), 111-135.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정우진. (2002). 출산조절결정 확산에 미치는 타인의 견해와 행동의 영향도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25(1), 213-256.

조덕상, 한정민 (2024).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KDI Focus, 132). 한국개발연구원.

통계개발원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www.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6&list_no=428486&act=view&mainXml=Y

통계청 (2024). 2024 출생통계. 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한국은행 (2023. 11). 경제전망보고서: 2023년 11월. www.bok.or.kr/portal/bbs/P0002359/view.do?nttId=10080881&menuNo=200066&pageIndex=1

한경미, 정혜선 (2010). 계획적 행위이론을 적용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출산의도 관련요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9(1), 41-49.

황옥경, 송미령 (2025).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6(4), 330-340.

허만형. (2020).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인구이동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시・군・구 비교분석. 지방정부연구, 24(1), 51-67.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8), 20-38.

Barber, J. S., Miller, W., Kusunoki, Y., Hayford, S. R., & Guzzo, K. B. (2019). Intimate Relationship Dynamics and Changing Desire for Pregnancy Among Young Wome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51*(3), 143-152. https://doi.org/10.1363/psrh.12119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Birks M., Mills J. (2015).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Los Angeles, CA: Sage.

Burn-Murdoch, J. (2024, March 29). Why family-friendly policies don't boost birth rates.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838eeb4e-3bff-4693-990f-ff3446cac9b2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nd

ed). Sage.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역). 서울:학지사. (원저 2013년 출판)

Fawcett, J. T., & Arnold, F. S. (1973). The value of children: theory and method.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4*(3), 23-25.

Glaser, B. G. (1992). *Emergence Vs. Forcing: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Glaser, B. G. (2014). 근거이론 분석의 기초:글레이저의 방법 (김인숙, 장혜경, 역). 서울:학지사. (원저 1992년 출판)

Hashemzadeh, M., Shariati, M., Mohammad Nazari, A., & Keramat, A. (2021). Childbearing intention and its associated factors: A systematic review. *Nursing open, 8*(5), 2354-2368. https://doi.org/10.1002/nop2.849

Kaplan, R. M. (2002). Goals and marital satisfaction: Perceived support for relationship goals and collective efficacy as predicto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157-174. https://doi.org/10.1521/jscp.21.2.157.22513

Kim, E., & Yi, J. S. (2024). Determinants of Fertility Intentions among South Korean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ehavioral sciences (Basel, Switzerland), 14*(10), 939. https://doi.org/10.3390/bs14100939

King, L. A., & Hicks, J. A. (2012). Positive affect and meaning in life: The intersection of hedonism and eudaimonia. In P. T. P. Wong (Ed.), T*he human quest for meaning: Theories,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pp. 125-141).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146286

Latshaw, B. A., & Yucel, D. (2022). Work-family conflict and partners' agreement on fertility preferences among dual-earner couples: Does women's employment status matter?. *Journal of Family Research, 34*(4), 1151-1174. https://doi.org/10.20377/jfr-689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0.00328.x

Mencarini, L., Vignoli, D., Zeydanli, T., & Kim, J. (2018). Life satisfaction favors reproduction. The universal positiv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childbearing in contemporary low fertility countries. *PloS one, 13*(12), e0206202.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06202

Montgomery, M. R., & Casterline, J. B. (1998). *Social networks and the diffusion of fertility control.* Population Council.

Nachoum, R., Moed, A., Madjar, N., & Kanat-Maymon, Y. (2021). Prenatal childbearing motivations, parenting styles, and child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5*(6), 715-724. https://doi.org/10.1037/fam0000826

Nachoum, R., Moed, A., Kanat-Maymon, Y., & Assor, A. (2023). Parents' childbearing motivations,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From pregnancy to 20¯month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5*(3), 747-768

Nauck, B. (2014). Value of children and the social production of welfare. *Demographic Research, 30*(66), 1793-1824. https://doi.org/10.4054/DemRes.2014.30.66.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 Country Notes: 대한민국. OECD 출판부. www.oecd.org/ko/publications/2024/06/society-at-a-glance-2024-country-notes_d98f4d80/korea_5c43a214.html

Rim, H., Kwon, K. Y., Fong, E., & Kim, J. (2025) Perceptions of Workplace Gender Discrimination and Fertility Intention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in Korea: Insights from Asymmetric

Fixed Effects Model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4*(4). https://doi.org/10.1007/s11113-025-09965-z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Tartakovsky, E., & Mizrahi, M. (2025). The motivational foundations of childbearing: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bearing attitudes, value preferences, and parental bonding. *PloS one, 20*(5), e0324243.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324243

Walker, D., & Myrick, F. (2006). Grounded theory: an exploration of process and procedur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4), 547-559. https://doi.org/10.1177/1049732305285972

Yarger, J., & Brauner-Otto, S. R. (2024). Women's Work Characteristics and Fertility Expectation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3*(2), 26. https://doi.org/10.1007/s11113-024-09866-7

Yoo, S.H., & Agadjanian, V. (2021). The paradox of change: Religion and fertility decline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44*(2), 537-562. https://doi.org/10.4054/DemRes.2021.44.23

1 차원고접수 : 2026. 03. 16.
수정원고접수 : 2026. 06. 19.
최종게재결정 : 2026. 06. 2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3, 273-303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3.002

Regular Article

# A Qualitative study on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 to Have a First child: Focusing on Childless Married Coupl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ungmin Ahn** **Yei-ji Seo**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childbearing decision-making process among 13 childless married individuals (6 males, 7 females, including 4 coupl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rough in-depth interviews, applying Glaser's grounded theory. The analysis revealed that a eudaimonic perspective on happiness, which frames children as partners in psychological growth and well-being,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the provisional decision to have children. This provisional decision was either finalized or postponed through a dynamic process of continuously evaluating and adjusting subjective readiness for parenthood, in which childbearing facilitators and childbearing delay factors were comprehensively considered. The final confirmation of the childbearing decision was driven by marital collective efficacy as a core mechanism, referring to a future-oriented shared confidence grounded in relational competence and trust accumulated through the experience of resolving marital conflicts. This study moves beyond the focus on removing barriers to childbirth and illuminates the psychological resources and meaning-making processes that make childbearing possible.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nductively theorizes the dynamic psychological process through which factors across individual, relational, organizational, institutional,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organically interact within an individual's internal experience to arrive at a childbearing decision, and demonstrates that this process is grounded in relational competence and subjective predictability. Finally, the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follow-up research on diverse groups of young adults and discusses the need to foster psyhological and social conditions that enable young adults to choose parenthood on their own.

*Key words : Childbearing decision-making process, Eudaimonic happiness, Marital collective efficacy, Subjective readiness for parenthood, Childbearing delay, Grounded theory*